

ENGRAM 기억흔적

Yeon Yeoin solo exhibition
연여인 개인전

SeMA 벙커

08
•16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I·SEÓUL·U iMC

08
•25



어느 겸손한 목격자 A Modest Witness

“기억은 정말 신체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다.

기억은 이를 떼면 세계의 절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에만 존재하게 된다.”

-C.G. Jung-

‘기억(anamnesis)’이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은 전면을 향해 질주하던 삶을 멈추고 지나온 자취의 뒤(ana-;back)를 향해 마음을 다하여(mnemon-;mindful) 돌아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후면에 위치한 삶의 편린들이 그다지 영광스럽지 아니할 때 인간은 의지를 다해 그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상실하거나 또는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하고 더는 들여다 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우주의 공간으로 그렇게 떠나 보냈다고 믿었던 과거의 사건들(events)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삶의 어떤 국면에서 문득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남다른 감정은 대략 공포이거나 혹은 정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도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편린들을 나의 피부로 가져다 대는 이른바 동일화의 과정으로서의 기억 흔적(engram)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획득하게 된다. 연여인 작가의 첫 개인전인 <기억흔적ENGRAM>은 이를 바탕으로, 작가의 내면으로 침습하여 퇴적한, ‘기억’이라는 무한한 층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경이로울 정도의 적요한 태도로 목격한 작가의 목격담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작가의 신작 <Whisper>의 작품을 보면 어느 투명한 벽에 걸터앉은 두 인격체 가운데 붉은 존재는 보다 인격적인 상대에게 침투하지 못한 채 녹아 내리고 있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다 보면 C.G. 융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했던 다음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공명하곤 한다. “나의 생애에서 누군가에게 속삭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불멸의 세계가 유한하고 무상한 세계로 침투했던 사건들뿐이다.” 필자는 융의 언어를 빌어 연여인 작가에게 침투하고 있는 이 ‘사건들’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언

급하는 '사건'이란, 현대 프랑스 철학의 거장인 알랭 바디우Alain Badiou가 정의한대로 한 주체 (Subject)가 온전히 '나 자신(Selbst)'으로 깨어날 수(aware)있도록 이끌었던 삶의 희비의 순간들이다. 이렇듯 작가에게 스며있는 '사건들'의 역할은 작가를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 (필자는 이를 기억흔적의 정의로 삼고 있다) 이끌었겠지만, 작가의 무의식에 담지 되어 있을 기억흔적은 대부분 저항할 수 없었던 연대기를 살았을 이 연약한 자아를 압도하는 가공할 힘이었을 터이므로 의식차원에서는 고스란히 이 흔적의 역사는 대부분 패절한 주체의 혼절로 동반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본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 가운데 반복되는 이미지인 '스러진 자아'의 이미지는 바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흔적의 이 '사건들'은 대부분 신화적으로 부활하여 혼절한 주체를 다시금 깨우고도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주체를 쓰러뜨린 일련의 그 사건들은 동시에 모로 누워 있던 작가를 흔들어 깨운 진정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전시에서 작가의 기억의 흔적은 단순히 선형적인 인생의 역사 가운데 부분 출몰한 추억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었던 기억들이 작가의 무의식에 퇴적한 이후 생명체로 화합한 한 존재가 된 것처럼 활성화 된, '기억흔적'이라는 활성화체(Activator)가 그려내는 전인적인 목격담이라 할 수 있겠다. 가공할 역동성을 지닌 이 생명체적인 기억흔적은 세상을 간단없이 절단해 보려는 담대함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체처럼 무의식을 길어 올리는 작가의 창의적 활성화체이다. 작가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품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론마저도 바로 이 활성화체에 자기 자신을 기투(企投: Entwurf)한 채 이 생명력 깊은 내면의 활성화체가 작가의 기억을 어루만지는 가운데 포착된 새로운 힘이 그려내는 이미지에 순응하는 방법이었다. 곧 이 과거의 흔적을 매개 삼아 오히려 작가에게 각인된 이 허위의 세상을 횡단하려고 하는 강력한 원의(DESIRES)가 이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아를 스쳐간 사건들의 허위와 폭력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가벼운 농담들로 살해되었던 자아들이 통렬하게 절단되어 이미지로 펼쳐지는데, 이 절단면의 두 층위의 틈으로 비로소 신화가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작가의 본 전시 표제작 이라고 할 수 있는(Sleep)의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작품 전면에는 두 거대 인격체가 여전히 스러져 푸른 늪 주위에 혼절한 채

로 있고 인근의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인격체들이 제 얼굴을 갖추지 못한 채로 거꾸로 처박혀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한편, 광대처럼 거대한 네 개의 목발을 가진 존재는 이 모든 사태를 무심히 횡단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두 개의 층위, 곧 혼절한 듯 깨어나지 않는 잠들어 있는(sleep) 존재들의 세계관과 간단없이 담대히 세상을 횡단하려는 네 개의 발을 가진 역동의 깨어있는(aware) 존재들의 세계관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작가 자신의 깊은 무의식을 스쳐간 사건들의 거대한 허위와 폭력 그리고 억압의 흔적들은 오히려 곱게 잠재우고(sleep), 현실계에서는 이 폭력의 세계관에 숨죽이고 잠들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작가 내면의 심혼이 일으킨 애절하며 그만큼 애절하기에 동시에 당당하고 눈물겨운 작가 본연의 자아가 성큼 성큼 이 가혹한 세계를 네 발로 횡단하려는 동물적인 본능의 역동성이 두 세계관을 가로지르며 매우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이 작가는 두 세계관 안에서 본연히 깨어나와 어디론가 횡단하고자 하는데 그가 종단하며 밟으려는 유일한 토양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스쳐 지나간 기억흔적(ENGRAM)인 것이다. 작가는 자신에게 축적된 이 오래된 층위의 기억들을 마침내 '뒤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돌아다보는' 기억(ANAMNESIS)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가 스스로도 그토록 염원해 마지 않았던, 이 세상을 횡단하려는 거대 기획을 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횡단하며 목격한 모든 광경들이 정작 작가 스스로는 어느 겸손한 목격자의 시선을 갖춘 채 여기 이렇게 조용히 관람자라는 새로운 시선을 초대하고 있다.

김 상 용 Creative Director

- 『기억흔적ENGRAM』 전시 총괄기획





Whisper , 2019

oil on canvas
116.8 x 91.0 cm

The meeting , 2019

oil on canvas
116.8 x 91.0 cm

심리학에서 Engram (기억 흔적)은 예로부터 학습에 의해 획득한 기억이 동물의 뇌 안에 어떤 형태로든 축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억 흔적이 쌓여 지금의 ‘나’ 또는, ‘Ego’ 가 형성된 이후로는 점차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마주하기 힘들어진다. 〈기억흔적, Engram〉 전시에선 나의 자아와 이를 이루는 수많은 기억 흔적들을 해집고 들어가, 이미 희미해져 버린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Feathers , 2019

oil on canvas
145.5 x 89.4 cm





Red , 2019

oil on canvas
130 x 163 cm



Sleep , 2019

oil on canvas
116.8 x 72.7 cm



Run! , 2019

oil on canvas
116.8 x 91.0 cm

무제 , 2019

oil on canvas
60.6 x 60.6 cm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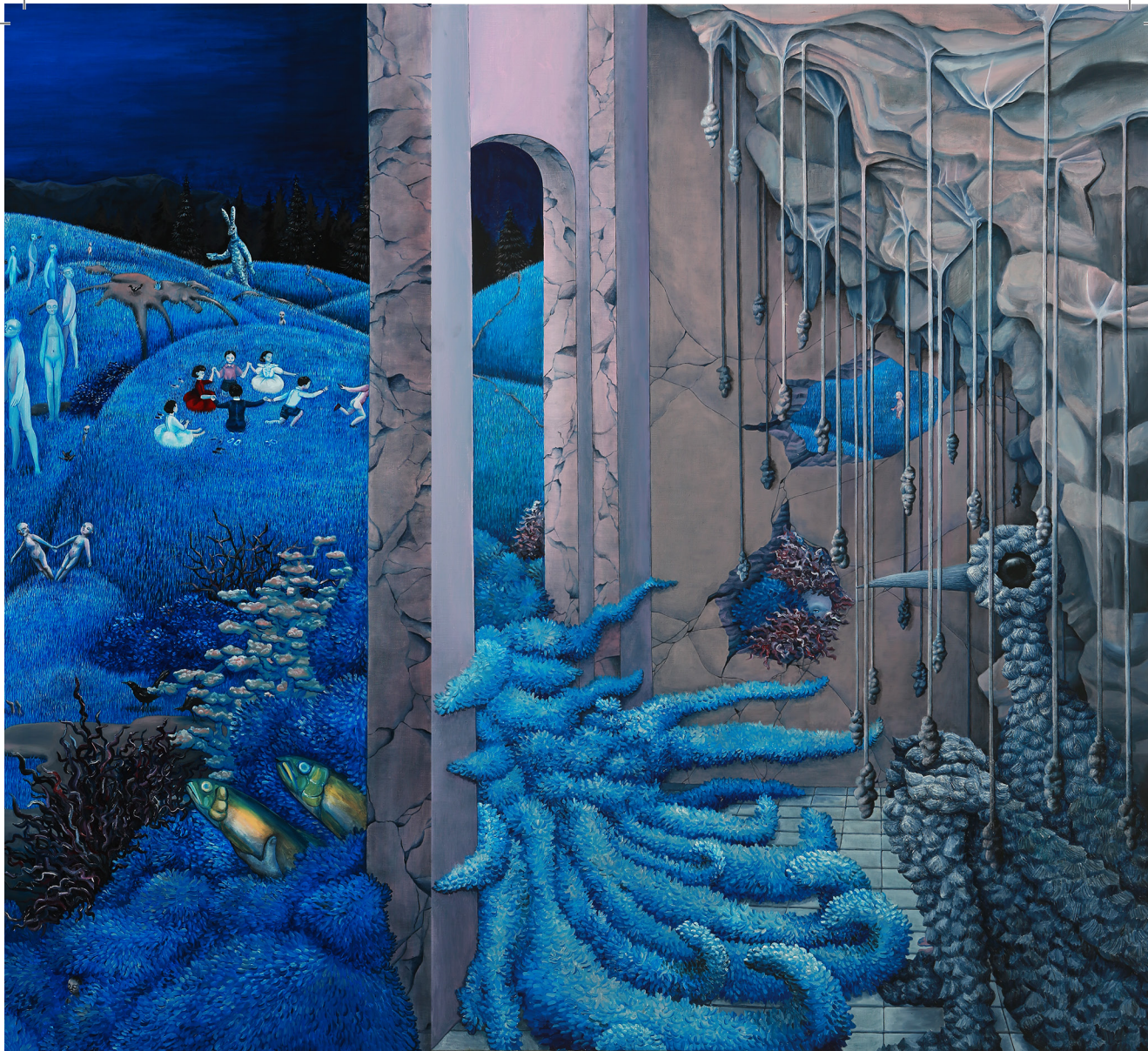
The wait , 2019

oil on canvas

1 _ 162,2 x 112,1 cm

2 _ 162,2 x 130,3 cm

3 _ 162,2 x 112,1 cm





Cold , 2012 , repainted in 2019 oil on canvas 60.6 x 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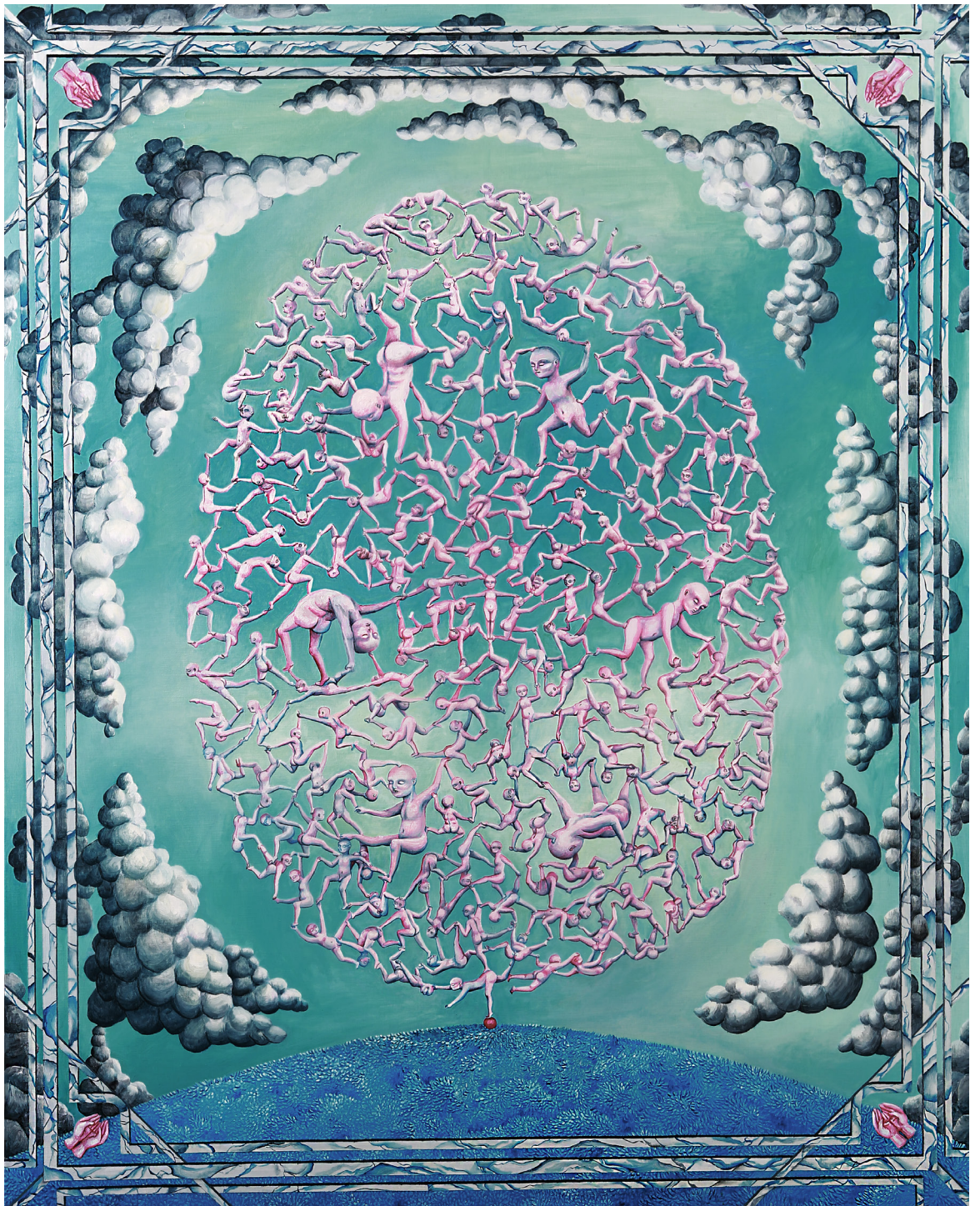


Float , 2019 oil on canvas 163 x 104 cm



Thank you , 2019 oil on canvas 116.8 x 72.7 cm





무제 , 2019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Murder , 2019 oil on canvas 65.1 x 50 cm



Lucy

2012, repainted in 2019

oil on canvas

70 x 130 cm

Mammal , 2019 oil on canvas 86,5 x 143 cm





Nap , 2019

oil on canvas
92 x 148 cm



Skin , 2019 oil on canvas 72.7 x 60.6 cm



Mirrors , 2019 oil on canvas 145.5 x 112.1 cm



A man , 2019 oil on canvas 65.1 x 53.0 cm



© 연여인

T 010 5262 7683

E yeoin.contact@gmail.com





iMC

I·SEOUL·U